

‘나눔 문화 만들기’ 불교계 나서자

안 쓰는 물건, 헌 물건 등을 교환 혹은 판매해 그 이익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취지로 이뤄지는 바자(bazaar), 싸고 다양한 물건을 서로 판매, 교환함으로써 나누는 삶과 남에게 베푸는 자선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나눔문화다.

불교계에서도 바자회, 알뜰시장 등을 통해 나눔의 정신을 전하고 이를 통해 환경, 종교화합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교계에서는 나눔문화가 1회성이나 단발적인

행사에 그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구체적인 바자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 인력 등이 부족한 탓이다.

사회적으로 나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불교계에서는 보시문화를 바탕으로 나눔문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이를 위해서는 성공적인 나눔의 장으로 자리 잡은 ‘아름다운 가게’ 등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불교계 바자문화와 아름다운 가게를 비교해 살펴본다.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단발성 행사에 그쳐

성공한 바자 모델삼아 보시 기회 넓혀야



매주 셋째주 일요일 길상사에서 열리는 ‘맑고향기롭게 알뜰시장’(위). 아름다운 가게에서 주부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오른쪽). 사진제공=맑고향기롭게

■ 불교계의 바자문화

8년 가까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길상사의 ‘맑고향기롭게 알뜰시장’. 매월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길상사 경내에서 재활용의류 및 각종 생활용품 판매하고 무공해 농산물, 자연화장품 등 각종 환경상품도 판매한다. 매달 모인 판매 수익금은 수재민 돕기 등 불우이웃을 위해 쓰인다. 500원,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아 모인 지난해 총 수익금은 6백만 원 정도였다.

이 알뜰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바자회가 아니라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한 연례행사라는 점이다. ‘아름다운 가게’를 실현하고 이웃을 돕는데 목적이 있지만 바자회에 그치지 않는다”라며 “재활용, 환경상품을 통해 자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환경운동의 역할도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수유동 화계사에 4년 전부터 천주교, 개신교 등 인근의 이웃종교와 함께 ‘난치병 어린이 돕기 공명바자회’를 개최해왔다. 지난해에는 5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금으로 10여명의 어린이들을 돕는 등 종교화합을 통한 이웃돕기를 실천한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000년 서울 동대문구 용도동에 환경 알뜰가게인 ‘내친구 초록이’를 열어 재활용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역시 1998년부터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등을 통해 신도들을 대상으로 바자회를 벌여왔다.

■ 나눔문화의 전형, 아름다운가게의 성공비결

현재 한국의 나눔문화를 이끌어 가는 선두주자는 ‘아름다운가게’다. 아름다운가게는 2002년 10월 안국점을 1호점으로 시작해 1년 만에 삼선

교, 독립문, 홍대, 서초, 신대방, 동대문, 광주, 경기 안산 등 전국 11 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하루 평균 34명이 기증해 총 기증자 수는 1만 194명(2003년 9월 기준)이다. 50여개 기업, 공공기관 등의 직장인들이 쓰지 않는 물품을 수집, 매주 토요일 직접 판매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의 참여자도 포함해서다. 이틀로부터 모아진 물건을 구매한 사람도 30만여 명에 달한다. 이렇게 폭발적인 호응 속에 2천 톤 이상 모인 기증품으로 지난해 1억5천6백만 원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했다.

이처럼 아름다운가게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남이 쓰지 않는 물건’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놓았다는데 있다. 아름다운가게는 기부를 통해 받은 헌 옷, 물건을 그냥 내놓지 않고 단계를 거쳐 점검하고 수리해 새것에 못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한다.

기부, 자선에 의지해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지만 기업에 버금가는 프로정신과 아이디어도 돋보인다. 아름다운가게가 지난해 11월 잠실 올림픽경기장에서 개최한 베품시장은 20여만 명이 다녀가 성황을 이루는 등 단순히 ‘좋은 일에 동참하자’를 내세우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이벤



트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매장마다 특색 있는 물건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안국점이 본점인 만큼 3층 매장에 다양한 물품을 갖추는데 주력한다면, 8호 홍대점은 ‘아가홍(아름다운가게 홍대점)’이라는 별칭으로 문화의 거리 홍대 앞답게 젊은 작가들의 아트상품 등 실험적인 생활문화용품 등을 판다. 이를 통해 젊은 작가들의 작품 발표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의 긍정적 효과는 정부차원에서 나눔시장 장려를 이끌어 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가 매달 1회 이상 중고품 시장이나 바자회를 열도록 지원하고, 서울시는 지하철 역 주변에 상설 중고품 시장을 열어 나눔의 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우린 붓다의 메아리”



우리 가족 이렇게 신행해요 <2>

김미화 불자 가족

엄마와 막내딸은 소프라노, 아빠는 테너, 첫째는 알토. 유명 성악가 가족보다 깊은 마음의 소리를 만들어 내는 가족이 있다. 은 가족이 붓다의 메아리인 박노찬(45·법진), 김미화(42·반야행) 불자 가족은 부부와 두 딸 소연(15·원명지), 현지(10·정법심양) 이 모두 조계사 혼성합창단, 거사합창단, 어린이합창단 활동을 하는 합창단 가족이다.

조계사 합창단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두 딸이 먼저였다. 지금 중학생이 된 큰 딸 현지가 초등학교 무렵부터 동생인 현지와 함께 3년이 넘게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해 왔다. 두 딸의 합창단 윗바라지를 하던 엄마도 자연스럽게 혼성합창단에 들어가게 됐고, 아빠 박 거사도 지난 해 3월부터 거사합창단의 창립멤버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처음에는 대중 앞에서 노래를 한다는 게 쑥스러웠어요. 하지만 일단 나무뿔타도 참여해 거사들의



모두 조계사 합창단 활동 “음성공양하며 욕심 놓고 행복도 얻고... 찬불가 화두처럼 품고 살아요”

신행활동 참여도 높여보자는 뜻으로 시작하게 됐지요. 거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진정한 ‘가족 신행’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박 거사)

이 가족의 한주는 늘 찬불가와 함께한다. 화·토요일에는 엄마의 혼성합창단 연습, 목요일에는 아빠의 거사합창단 연습, 일요일에는 일요법회 참가와 음성공양 등을 위해 일주일에 4일이나 절에 간다.

“엄마 아빠랑 같이 절에 갈 때가 제일 좋아요. 가족이 함께 찬불가를 부를 때면 행복해요.”(막내 딸 현지)

“무엇보다도 가족이 함께 신행생활을 하면서 이해심이 깊어지는 거 같아요. 가족 간에 하나는 일이 있더라도 찬불가를 부르고, 부처님 말씀 생각하며 금세 화해하지요. 음성공양을 통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배웁니다.”(김 보살)

무엇보다도 합창단 활동은 두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게 하고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다. 두 꼬마 음악가들은 의정부 군부대 위문 공연, 2002년 종교음악제, 2003 한마음 음악제 등 크고 작은 무대에 여러 번 서본 ‘준 프로’들이다.

박 거사 부부는 얼마 전부터 매달 둘째, 넷째 일요

일에 용산, 중구, 마포 등을 비롯한 서울 중부지역의 지역법회도 참석하고 있다. 이곳에서 박 거사는 노인 불자를 대상으로 찬불가를 지도하기 시작했다.

“노 보살님들이 찬불가를 부를 때면 제일 신명나게 하세요. 어깨를 들척거리실 정도로 좋아하시고 관심도 많으시죠. 저희들이 찬불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시고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십니다.”(박 거사)

“부처님의 향기로운 말씀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찬불가가 많이 보급됐으면 해요. 경전에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구절도 찬불가를 부르다보면 어느 순간 ‘아이 말씀이었구나’ 깨우치게 되거든요.”(김 보살)

찬불가를 통해 수행한다는 김 보살은 “얼마나 뒤이야 거울 마음 닦을까”라는 노래를 가슴에 화두처럼 품고 있다. 이 곡만 노래하면 왠지 모르게 가슴에서 무언가 솟는 것을 느낀다고. 박 거사는 ‘내가 없는 이별의 노래’의 ‘내가 없는 허공 길에 봄이 왔건만’이라는 소절을 자주 되뇌게 된다. 엄마 아빠의 애정곡 자랑을 들던 막내가 질세라 ‘우리 절 연못’으로 한 곡조 뽑는다.

음성공양을 하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가족의 행복도 얻었다는 박 거사는 앞으로 어린이 포교를 지원 하려는 서원을 품고 있다.

“얼마 전에 두 딸아이의 학급에서 종교분포를 조사했는데 불교인 사람이 각각 한반에 두 명이었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린이 포교의 심각성을 절감했지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엄마 김 보살도 자그마한 바램을 덧붙였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합창단 활동을 했으면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나이 들어 생긴 혼성합창단의 빈자리를 채워줬으면 합니다.”

한상희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대구 대승불교대학 정토사 부설 불교의식 대학

제2기 불교의식(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3월초 개강

본 대학은 대승불교의 수행 이념을 전파코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강신(甲申)년에 경전 강의와 함께 불교의식반 신입(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과정

- ① 초급반 (3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기, 도량석, 쇠승, 상단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행선축원, 신중칭, 관음기도법, 산왕기도...
- ② 중급반 (3개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5시)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경, 관음시식, 시디림법, 정안시식, 방생시식, 구병시식
- ③ 적법반 (6개월):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 천수바라, 다계작법, 오공양작법, 요점바라, 삼귀의작법 (일명 바라 나비춤)
- ④ 고급반 (6개월): 영산재, 예수재, 수륙재 등... (의행자 소수)

대구대승불교대학 부설 범음·범패 의식교육원·정토사

신정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14-5 (월촌역 4거리)
전화 : (053) 622-0333 / 011-699-9120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실기훈련·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과목

- 발성훈련, 표정연기,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수안내

- ▶ 기간: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 ▶ 강의: 수요일 - 매주 (수) 오후 1시 ~ 3시, 목요일 - 매주 (목) 오후 7시 ~ 9시
- ▶ 지도교수: 김철수 박사
- ▶ 장소: 본 연수원
- ※ 출장 또는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헤거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교리 강좌 (18기)

불교를 체계적으로 폭넓게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불교교리 및 불교의식을 헤거스님께서 직접 알기쉽게 강의 하십니다. 기도와 참선, 의전 등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십니다.

개강

2004년 2월 25일 (수)

시간

매주 수요일 - 오전 10:30 ~ 12:00
오후 1:30 ~ 2:30 (점심공양 제공)

기간

4개월

※ 문의 및 접수: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선원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전화 : 02-445-8484
fax : 02-445-8043

당신도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과정!! 속성비결!!

명리학 강좌

가장 어렵다는 운신법을 쉽고 간단하게 배울수 있으며 3개월만 배우시면 당신도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 ▶ 내용: 사주작성, 취유법, 태세운법, 사주간명법, 적성판단, 직업판단, 태일, 공합, 적명법(살생위주)
- ▶ 개강: 2004. 2. 4 (주 2회 - 매주 수요일, 주·야간반)
- ▶ 강사: 명리학 교과서, 매화역사 저자 직강(교재 무료)

매화역사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영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로 귀경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 유일의 강좌로 년과 월은 물론 시간대별로 길흉화복의 적중률이 매우 높은 명리학입니다

- ▶ 개강 일정: 2004. 2. 6 (09:00~12:00) ※ 주말반, 개인지도 가능 주 1회 - 금요일 (주·야간반) 1개월 완성
- ▶ 강사: 매화역사, 명리학교과서 저자 직강(교재 무료)

정통풍수지리 강좌

매설 사용법을 위주로 관산을 통해서 음택을 터득하고 양택에서는 사무실, 점포, 가족의 길흉판단, 풍수건방법, 풍수인테리어에 중점을 두고 완벽한 수준까지 지도해 드립니다.

- ▶ 개강: 2004. 2. 6 (주 1회, 주·야간반: 2개월 완성)

사암침술학회

장소: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문의: 011-307-2975, 02)2267-9136